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성범죄입니다”



신기숙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대구경
북지회, 부설성폭력상담소장

연일 더워지는 날씨를 보면서 자연의 순리 앞에 잠시 바쁜 일손을 쉬고 창밖을 바라본다. 청소년들과 인연을 맺은지 16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름의 뒀안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성문제로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청소년들을 맞이하는 상담자로서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여름을 맞는다.

여름휴가가 한창이었던 작년 8월이었다. 기숙사 사감으로부터 여직원 상담을 의뢰 받았다. 그 업체는 년 1~2회 정도 성교육 하던 곳이라 사감과 친분이 있었다. 다음날 20세 된 여직원이 얼굴에 근심을 가득 안은 굳은 표정으로 내방했다. 내담자는 회사의 휴가기간에 맞춰 친구들과 동해안 바닷가로 여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내담자는 모임에서 총무일을 맡았기 때문에 차량문제로 고민하다가 평소 잘 아는 남자로부터 차량 제공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드디어 휴가 첫날. 원래는 여자 6명, 남자 4명이 가기로 했는데 남자측에서 그 지역출신의 친구 1명을 더 합류시켰다. 처음 보지만 휴가의 들뜬 기분으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민박집도 정했다.

여름의 바닷가는 낭만과 젊음이 넘치는

곳이었고 모두 스스럼없이 장난치면서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니 술과 안주 등이 떨어졌고, 총무일을 맡은 내담자가 시내로 사러가야 했다. 그때 처음 온 남자가 이 지역 출신이니 자기가 보디가드 하겠다면서 따라 나섰다.

술을 먹어 운전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하여 시내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들어오다가 남자가 중간에서 내리자고 했다. 내담자는 술도 약간 취한 것 같고, 처음인 남자와 계속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냥 가자고 하니 지름길이라 했다. 지름길로 가는 도중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멋진 야경을 보여 주겠다면서 기어이 내리도록 했다. 내담자는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들도 있고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는 마음으로 따라갔다. 조금 들어가니 비포장 도로이고 어두운 길이라 사방을 분간할 수 없어 다시 돌아가자고 내담자가 말하면서 돌아서는데, 남자가 갑자기 내담자를 거칠게 붙잡았다.

화난 목소리로 남의 성의를 무시한다면서 태도가 들변하여 내담자를 안고 비포장도로에 그대로 쓰러뜨렸다. 처음에는 거칠게 반항했다. 남자는 몸부림치는 내담자의 뺨을

때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때 내담자의 머리 속에 갑자기 성교육 받았던 내용들이 생각났다. '지금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차라리 남자에게 이 상황에서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함으로 성적 흥분을 감소시켜 이성을 찾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뒤 다급하게 내담자가 소리를 질렀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니, 남자가 멈칫하다가 다시 시도하려 했다.

그때 또 내담자가 "혹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옛날 유명하게 도망다니던 신창원 같은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하니 남자는 "감방갔지?"라고 등명스럽게 대답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결코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따라왔어요. 당신의 지금 이 행동은 성폭력이고 성범죄인데 그러면 당신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겠네요."라고 했더니 남자가 손에 힘이 조금 풀리면서 "무슨 이야기하고 싶으냐?"라고 했다.

내담자는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 지금 당장 이 행동을 그만두면 좋겠다"라고 계속 설득했다. 한참 후 남자는 몸을 일으켰고 그래도 머리가 남았는지 내담자를 계속 성추행하다가 없던 일로 하자면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

그날 밤 내담자는 한숨도 못 자고 그다음 날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밖에 나가 어울리지 않았다. 남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다른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렸고 내담자에게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생겨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 다음날 기숙사로 혼자 와 버렸다.

내담자는 처음에는 혼자서 잊어버려야지 생각했지만 계획적이라 생각이 드니 용서할 수 없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를 그냥 두어서는 안될 것 같아 회사 기숙사사감에게 의존한 뒤 상담실로 내방했다.

그 다음주 남자는 강간미수로 구속되었는데 남자는 오히려 여자에게 책임을 씌우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 성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성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름다워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위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신의 욕심으로 짓밟는 범죄란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성범죄입니다"라고 말 할 수 있는 당찬 마음과 그런 말들이 필요없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남자는 아무 일 없...
성...
시간이 갈수록 화가 나...
남자는 강간미...
책임...

